



KBS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OECD국가 중 1위
2017년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사적 역량 집중 산업안전 특별 편성주간 마련

2019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모두 2,020명(사고사망: 855명, 질병사망: 1,165명). 사고사 기준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올해도 9월까지 벌써 660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숨져 퇴근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 의제를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KBS는 11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산업안전 특별 편성주간으로 정해 뉴스와 다큐·시사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우리 노동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집중 조명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모색한다. 이는 KBS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안전 중심채널’이 되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뉴스9> ‘일하다 죽지 않게’ 시리즈 연속보도



지난 7월부터 선제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코너를 통해 산업재해 이슈를 심층보도 하고 있는 <뉴스9>는 산업과학부,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등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의 전 부서가 협업해 산업안전 관련 기획물을 주중 5일간 연속 보도한다. 30일 첫 방송에서는 ‘부끄러운

1위, 언제까지’라는 부제로 우리 사회 산업안전에 대한 질문으로 포문을 열면서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 속에 생명의 가치보다 이윤이 우선시돼온 우리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어 장애인 산재, 과로사, 산재 희생자 유족들의 삶 등 산업 발전에 따른 산재의 역사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제도와 노동관계법의 현주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1월 30일(월)~12월 4일(금) 밤 9시 KBS11

⊕ 특별생방송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 ‘일하다 죽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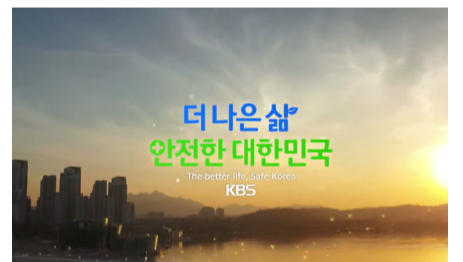
12월 4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방송될 특별생방송에서는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씨 사망 2주기를 맞아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을 집중 점검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쟁점 등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원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특별생방송에는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출연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박지훈 변호사 등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모색한다.

▶ 12월 4일(금) 오후 5시 KBS11

⊕ 다큐 및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집중 조명

‘일하다 죽지 않게’ 특별 편성주간 동안에는 그동안 <시사직격>을 통해 방송됐던 산업재해 관련 아이템(‘목숨이 낙엽처럼, 공사장 추락사’, ‘3천 원의 목숨값, 배달라이더’, ‘물류창고 대형참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가 다시 방송되고 (12월 2일~4일 오후 1시, 1TV) <아침마당>, <심야토론>, <사사건건>, <더 라이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요진단 라이브> 등 주요 정



규프로그램에서도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대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KBS 라디오도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경영의 경제쇼>, <KBS 열린토론> 등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방송할 예정이다.

I.N.T.E.R.V.I.E.W

한창록 편성본부장



이번 ‘일하다 죽지 않게’ 특별편성 배경은?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KBS의 브랜드를 ‘재난극복 중심채널’으로서 포지셔닝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기후재난, 산업재해 등도 점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하반기에 ‘국민안전 중심채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확장했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자연재해, 산업재해, 생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공영방송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환으로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어젠다를 설정해, 지난 10월에 특별편성주간으로 그 시작을 알렸고, 이번에는 보다 집중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 ‘산업재해’에만 초점을 맞춰 해마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야만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송을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의제나 프로젝트 계획은?

코로나19나 자연재해 상황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어젠다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제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대기화 다큐, 역사 드라마, 제2의 대한민국 어게인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콘텐츠가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1년 편성방향은?

내년은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고 본질을 붙잡아 공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송으로 국민의 KBS로 거듭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지상파 위주 편성을 ‘멀티 플랫폼’ 편성으로 완전히 혁신해, 지상파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아우르며 크로스미디어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다가가는 확장된 공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2021년 새로운 도약 위한 준비 한창

KBS는 코로나19가 가속시킨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적책무 수행을 통해 수신료 가치를 높이면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KBS를 이끌어갈 2021년 종합예산(안)과 방송기본계획(안)이 경영회의 의결을 마쳤고 지난 25일 이사회에 상정, 추가논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적책무 강화와 수신료현실화」 뒷받침할 종합예산(안) 마련

경영회의 의결을 마친 종합예산(안)에는 공사의 경영목표(안)와 예산(안)이 담겨 있는데, 우선 「공적책무 강화와 수신료현실화」라는 경영목표(안) 아래 ▲독보적 신뢰 ▲압도적 영향력 ▲콘텐츠 도달률 강화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 ▲창의적 조직으로 변화라는 5대 세부 목표와 12대 역점 과제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21가지 핵심사업이 설정됐다. 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2021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방송에 따른 지출, 비용 간축 및 비상경영계획 이행안 등 자구노력과 인력구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공사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책정했다. 「공적재원 확보 및 사업구조 효율화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을 예산 편성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책무 수행 강화 ▲미래방송 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경쟁력 제고 ▲수신료현실화 등 적극적 재원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편성 방안을 마련했다.

종합예산(안)은 편성·제작, 보도, 기술·뉴미디어, 시청자·정책 등 4개 분과의 이사회 예산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며, 총괄심의를 거쳐 방송기본계획(안)과 함께 오는 12월 말 개최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송기본계획(안)… 「공정·창의·혁신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방송기본계획(안)도 경영회의 의결을 마쳤다. 방송지표(안)는 「공정·창의·혁신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인 2021년에도 흔들리지 않고 새롭게 전진하겠다는 KBS의 다짐을 담았다. 방송기본계획(안)에는 방송지표(안)를 실천하기 위한 10대 방송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채널과 플랫폼별 상세 편성방향이 담겨 있다. KBS는 이를 통해 방송지표(안)가 국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할 계획이다.

연재 기획 수신료현실화

‘공영성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공영미디어’로

KBS는 올해 세 차례의 긴축조치를 통해 3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40년째 동결된 수신료와 극심한 광고·협찬 경쟁까지 내몰리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KBS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을 출범, 수신료현실화를 위한 네 번째 (2007년, 2010년, 2013년)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으로부터 지난 4개월여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총재원 중 수신료 비중… KBS 46%, BBC 75%, NHK 98%

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간섭이나 자본의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은 공적재원을 토대로 공익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신료 수입으로 KBS 총재원의 46% 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수신료가 40년째 월 2,50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광고 등의 상업적 재원에 의존해 온 결과입니다. 영국 BBC는 75%, 일본 NHK는 98%의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부족한 수신료 수입을 보충하던 광고수입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과 디지털 상업미디어의 확장 속에서 지상파 광고시장이 ‘몰락’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위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KBS의 광고수입은 2015년 약 5,000억 원에서 2019년 약 2,5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KBS의 총수입은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 KBS 공적책무 수행 매진 어려워… ‘공영성의 위기’ 상황

궁극적인 문제는 KBS의 공적책무 수행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임금동결, 예산긴축 등의 비상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부족한 재정을 광고 등의 상업적 수입으로 메꾸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적책무에 온전히 매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여력도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의 방송제작비는 2012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재정규모의 위축과 제작단가 인상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재방송 비율 확대 등으로 대처해 온 결과입니다.

단순한 ‘재정의 위기’가 아닌 ‘공영성의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는 지난 7월 1,000명의 인력감축과 인건비 비중 축소,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행돼야 할 자구노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공영성의 위기’가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아끼고 줄이는 것만으로 KBS에 맡겨진 공적책무를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

습니다. KBS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재정립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영미디어로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결단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지난 7월 24일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①재원구조의 공영성 강화 ②공적책무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 ③공영방송 존립·발전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팀에서는 ▲신뢰 ▲품질 ▲혁신 ▲다양성 ▲개방과 협력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유효한 공영미디어의 책무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론 조사를 통해 시민과 시청자가 원하는 공적책무를 파악하고, 경영진이 직접 외부의 여론과 조언을 청취하는 ‘공영성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내 ‘공영성강화워킹그룹’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왔습니다.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회적 소통의 결과물로 수신료현실화안을 성안해 갈 계획입니다.

◆ 수신료현실화는 공영방송 존립과 공익성 위해 반드시 필요

수신료현실화는 단순히 KBS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존재의미와 차별적 가치를 증명하면서, 미래에도 공영방송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국민들의 동의를 묻는 과정입니다. 재난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 무분별한 거짓정보의 범람 속에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저널리즘의 확립, 단절과 파편화의 시대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감동의 콘텐츠 제공,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보호,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주권과 관여 확대 등 공영방송의 책무와 소명을 뚜렷이 제시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존립을 넘어,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문화 전체의 공익성을 살리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12월에는 수신료현실화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미디어 공영성의 위기 속에서도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KBS만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엄중하고 가치 있는 소명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결연한 의지,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구성원 모두가 수신료현실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승동 사장, 세계 공영방송 수장들과 코로나19 시대 생존전략 논의

양승동 사장은 지난 24일 세계 공영방송사 수장들과 함께 PBI(세계공영방송총회) CEO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와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KBS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와 통신사가 제휴한 OTT 플랫폼 'wavve' 출범 그리고 주요 종편 채널(PP)과 함께 추진 중인 'IPTV 통합서비스' 등 민간 상업기관들과의 협력 사례를 영국 BBC, 독일 ARD, 이탈리아 Rai와 미국 PBS 세계 주요 공영방송 사장들과 EBU와 PMA, GTF 등 국제 방송기구 수장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KBS가 '공적채무 수행', '수익성 제고', '도달률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정보호를 위해 지난 40년간 월 2,500원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현실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올해 PBI총회는 취소됐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공영방송사 간 생존전략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긴급하게 마련됐다.



KBS는 2021년 방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올해 방송계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온라인 형식의 제작방식이 도입되는 등 전례 없는 제작 환경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 방송 광고 급감으로 재정위기까지 이어진 상황. 이에 KBS는 2020년 방송을 돌아보고 2021년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사외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들어보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 13일 KBS아트홀에서 <KBS는 2021년 방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한 이 세미나는 현장 강연과 동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돼 관심을 모았다.(유튜브 조회수 1,880여회 / 11월 27일 기준)



※ 공영미디어연구소 세미나

'KBS TV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진단과 제언' 첫 주제를 맡은 정일환 코바코 영업1국 팀장은 KBS 프로그램을 진단하며 "주말에 비해 약세인 주중 프로그램 시청률과 2049 시청률 하락세 극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존에 KBS가 강세를 보여 왔던 3059세대가 시장에서 중요한 만큼 PPL 활용 등 적극적인 산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나혼아쇼'나 '랜선장터' 같은 공영성을 살린 착한 콘텐츠 제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외국 제작진과의 협업 기회 마련을 통한 글로벌 제작 능력 배양과 함께 콘텐츠 제작과 배급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제작 경험을 통해 본 KBS 드라마 발전 전략' 두 번째로 강연에 나선 이상백 에이스토리(드라마 '킹덤' 제작사) 대표는 최근 방송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는 OTT와 넷플릭스의 제작방식을 살펴보는 한편, 드라마 <굿 닥터> 등을 사례로 들며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등

'COVID19 시대의 방송포맷과 방송환경 전망' 세 번째 주제를 맡은 이양한 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다

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방송환경은 결국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IP 소유자 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기술 바탕의 새로운 방송 포맷 등장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KBS가 참고할만한 유튜브 콘텐츠' 마지막 주제를 강연한 김경달 KBS이사(네오웹 대표/'유튜브 트렌드 2021' 저자)는 "연결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인만큼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유튜브의 장점인 알고리즘(검색+추천기능)에 대한 이해와 쌍방향 소통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형 모델, 소통형 모델 등 유튜브를 통해 배우거나 참고할 모범 사례가 많으며 이같은 형태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방송 유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취재기



요양병원 노인들은 왜 잠만 잘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되며 KBS 보도본부에도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5월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실태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병실에 나란히 누워있는 노인 7명. 낮 시간인데도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노인에게는 '영양제'라 불리는 의문의 수액이 투약됐고, 이후 노인이 조용히 잠드는 장면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항정신병제로 노인행동 통제 '화학적 구속' 만연
미국에서는 이미 요양시설 노인들에게 투약된 항정신병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환자의 행동을 약물로 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Chemical Restraint)'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내역 분석 결과, 전국 1천 5백여 개 요양병원에서 한 달 평균 233만여 개의 약물들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투약 목적에 맞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는 전체 처방환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90% 넘는 대다수 투약은 치매환자와 '일반 환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 이후 전보다 평균 처방량이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도 괜찮은 요양병원 ... 존엄한 노후 연속보도
9월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약

먹고 잠자는 노인이 바로 내 부모님이다"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대안을 내 달라는 시청자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별취재팀을 꾸려 10월에 <뉴스9>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연속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달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도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11월에는 <시사기획 창> '코로나19 요양병원 그후, 존엄한 노후'도 방송됐습니다.

보건당국 "항정신병제 처방 감독 개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문제 약물목록을 올리고, 노인 주의 약물 지표를 만들어 항정신병제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요양병원들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역시 의학적 판단에 의해 처방이 내려지고 있지만, 면밀히 조사해 과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줄여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국격에 맞는 노인복지' 위해 지속적 취재
급속하게 발전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누구든 피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해 노인복지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주요 시간대로 옮기며 새 단장... "제작진 설명책임 강화"

KBS의 대표적인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데스크>가 지난 8일부터 방송 시간을 주요 시간대로 옮기고 제작진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코너를 신설하는 등 새단장을 마쳤다. <TV비평 시청자데스크>는 먼저 기존 금요일 오후 1시에서 일요일 오전 9시 10분으로 방송 시간대를 옮겨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시청자평가원'들이 참여하는 'TV를 말한다' 코너를 만들어 기자, PD 등 제작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시청자들의 지적에 답변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의문과 지적에 대한 공영방송 제작진의 설명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른 변화이다. 이밖에도 언론학 교수와 대중문화평론가 등 미디어 전문가들이 출연해 KBS뉴스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물론 취재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고충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뉴스 비평 zoom' 코너도 신설했다. <TV비평 시청자데스크>는 앞으로도 시청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다 친숙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0분 **KBS11**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106.1MHz! 김혜영과 함께

무려 33년 경력의 베테랑 DJ 김혜영 씨가 KBS 라디오에서 새로운 동지를 틈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친근하면서도 톡톡 튀는 매력으로 청취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DJ 김혜영 씨를 사보가 만났다.

Q KBS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소감은?

A 8월 31일부터 <김혜영과 함께>를 진행했으니 KBS로 출근한 지 3달 정도 지났다. 직장인들은 이른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저는 많은 나이에도 재취업(?)에 성공했고, 오후에 매일 출근하니 더 감사하다. 이전 33년 동안 <싱글빙글쇼>를 진행할 때는 밥 한 끼 먹는 느낌의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동안 한 끼 집밥을 먹어 왔다면 지금은 '특식'을 먹는 느낌이다. 거하게 차려진 밥상을 접하는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외식과 같아서 신경 쓸 게 더 많은데 세월이 지나면 집밥처럼 편안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Q 김혜영에게 '라디오 DJ'란 어떤 의미?

A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지내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저의 방송을 들어주셨던 애청자들께서 그동안 큰 사

랑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사랑을 주시고 있다. "여기 있었나?"고 "그 김혜영이 맞나?"며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하다"고 방송 중 그런 문자가 오면 몇 번씩 울컥한데 아직도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하다. <김혜영과 함께>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가게다. 큰 가게를 하다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다.

Q <김혜영과 함께>가 자랑할 만한 코너들은?

A 요일별 다양한 코너가 있는데 매주 가수들이 출연한다. 화요일에는 기존 인기 가수들을 초대하는 라이브 코너, 수요일에는 내가 패널로 출연 중인 <아침마당> 출연 가수들을 직접 섭외해 출연시키기도 한다. 코로나19로 가수들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데 청취자들에게 라이브로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다. TV와 라디오가 함께 신인가수들에게 출연할 무대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활발히 활동하는 최고 인기가수들도 출연하고 있는데 남진 씨는 2번이나 출

연했다.

Q KBS 라디오 DJ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A 제가 진행하고 있는 <김혜영과 함께>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106.1MHz 채널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아직 채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40~50대들을 채널이 별로 없는지 채널을 돌리다가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김혜영과 함께>도 좋지만 106.1MHz를 많이 알리고 싶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KBS에 초대를 받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취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잠시나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DJ가 되었으면 좋겠다.

▶ 매일 오후 2시 **KBS 2라디오** (수도권 106.1MHz)



제30회 KBS국악대경연 대상에 성악부문 왕윤정 씨 왕기철 명창의 딸... 代 이어 父女 수상



지난 19일 KBS홀에서 열린 제 30회 KBS 국악대경연 대상선정 연주회에서 성악 부문 왕윤정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성악과 관악, 현악과 무용, 타악 5개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대상'의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연을 펼친 끝에 성악부문 왕윤정(여, 판소리) 씨가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왕윤정 씨는 왕기철 명창의 딸로 왕기철 명창 또한 제11회 KBS국악대경연 성악부문(판소리) 장원 출신. 왕 씨의 이번 수상으로 代를 이어 父女가 KBS국악대경연의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왕 씨의 삼촌 왕기석 명창 역시 제10회 KBS국악대경연 성악부문(판소리) 장원 출신이다. KBS사보와의 인터뷰에서 왕 씨는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도전하셨던 대회에 저 또한 용기 내어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께서 거쳐 가셨던 대회였기에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 온다"며 "큰 상을 주신만큼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KBS, 전파방송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KBS가 지난 2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제21회 전파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BS 미디어기술연구소(소장 정병희)가 출품한 AI 기반 8K 미디어 프로덕션 (VERTIGO)은 초고해상도(8K) 영상과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편집 시스템으로 촬영된 풀 영상을 모바일 시청에 적합한 세로형 영상으로 편집·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KBS 본관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안전성 강화해 정상 운영



본관 2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가 유리창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교체된 유리창은 기존 유리창에 비해 방범과 보안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제작진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도를 높이고 청취자와 함께 하는 '오픈 스튜디오' 본연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는 지난 8월 외부인에 의한 파손 사건 뒤, 그동안 일반 유리창과 패널로 임시 복구해 운영해왔다.

"재난방송 대비도 실전처럼"... 보도본부, 재난방송 대비 모의훈련 실시



KBS는 지난 13일 0시 30분(상황 발생 기준) 본사와 춘천총국에서 재난방송 대비 모의훈련을 동시 실시했다. 이번 야간 모의훈련은 지난해 피해가 컸던 강원 산불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 재난방송 3단계 상황에 따라 춘천총국(강릉국)과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재난방송 모의훈련 메시지' 문자를 전 사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속보 상황이 신속하게 전달됐으며, 최종적으로 뉴스 특보가 차질 없이 방송되며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9월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야간상황실장제 도입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야간 시간에 제한적인 인원이 대기중이었지만 보도본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신속하면서도 긴밀하게 진행됐다. KBS는 <KBS 재난방송매뉴얼>에 따라 연 12차례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진, 산불 등과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KBS-SKT,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실증 및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업무협약



KBS와 SKT는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SK T-타워 회의실에서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과 강종렬 SKT 인프라센터장이 양사를 대표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실증 및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BS와 SKT는 차세대 방통융합 기술인 ATSC3.0+5G 실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차세대 방통융합 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서·산간 지역 등 방송 및 통신서비스 취약지역의 품질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비용절감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 구분 | 부문 | 작품명 | 수상자 |
|-----------------|---------|--------------------------------------|-------------------------|
|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 TV | <세상 끝의 집 -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3부작 | 김동일 |
|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 | TV 시사교양 | <시사직격 -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 | 정범수·이유심/정윤미·이한나·김경숙(작가) |
| | 라디오 |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방송 -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 | 김홍범·강소연·송지민/허향아·김혜림(작가) |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기획보도 |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 홍해림·왕인흠·우한솔·전현우 |